

# 국민 음료 마일로가 쏘아올린 '설탕 논쟁'

말레이시아사무소

## Healthy하지 않은 'Healthier Choice' 논란

• 최근 말레이시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설탕논쟁'이다. Mindvalley의 CEO인 비센 라키아니(Vishen Lakhiani)가 유튜브에 올린 마일로(Milo)의 설탕 함량에 관한 영상이 발단이 됐다.



Mindvalley의 CEO 비센 라키아니가 올린 유튜브 영상

• 국민음료로 불리는 마일로는 어린이들이 아침식사를 대신하거나 운동하기 전에 자주 마시는 음료이다. 마일로는 보건부의 인증마크인 'Healthier Choice'를 전면에 내세우고 건강음료로 광고하며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마크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설탕함량이 40%나 된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식품기업과 정부의 유착 의혹에 거세진 설탕논쟁

• 설탕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이유는 영양학자 및 보건부에서 네슬레, 펄론, 펄시, 페스코, 테이트 앤 라일과 같은 주요 식품업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대가로 편향된 기사나 보고서를 써주고 있다는 의혹을 2017년 12월 뉴욕 타임즈(NYC)가 제기했기 때문이다.



'Healthier Choice'  
인증마크

마일로에서 판매하는  
시리얼, 파우더음료, 스낵바



- 해당기사에 이어 2018년 1월, 마이로 관련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설탕함량이 높은 식품들을 어린이들에게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분별한 광고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들은 설탕소비 제동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노출된 말레이시아인

- 2017년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아세안의 비만에 제동을 걸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비만인구는 전체의 13.3%이고 과체중인 인구 비율은 38.5%나 된다. 주원인은 운동부족과 건강하지 못한 음식섭취 패턴이다.
- 또한 국립보건질병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말레이시아 성인의 30.3%가 고혈압이며, 47.7%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띠고 17.5%가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 국민 5명 중 1명꼴인 21.6%의 성인이 당뇨병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경고했다.

### 식습관 개선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강경정책

-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말레이시아 정부는 건강에 관한 인식개선 차원의 다소 가벼웠던 기존정책을, 법규를 통한 강경정책으로 변경하고 나섰다. 음식점 운영시간을 제한하거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에 대해 소비세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외에도 국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 ‘건강’을 키워드로 한 제품개발에 주력할 것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정부의 각종 정책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Healthy’, ‘Sugar Free’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한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말레이시아의 건강식품 및 스낵시장의 높은 잠재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 식품업체들 역시 이를 강조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건강한 기업·제품의 이미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